예술로 채워 지역을 잇다

영등포역과 문래창작촌, 주민을 잇는 중심 거점 계획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9
대지면적 | 26,000 ㎡
건축면적 | 7,200 ㎡
연 면 적 | 32,000 ㎡
규　　모 | 최저 1층 (약 5M), 최대 13층 (약 55M)
건 폐 율 | 30 %
용 적 률 | 123%

영등포구 문래동의 자리하고 있는 대선제분은 과거 우리나라의 밀가루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었다.하지만 지금은 가동하지 않고 옛날의 공장의 모습 그대로 남아 주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부지에 젠프리피케이션으로 문래창작촌을 떠나간 예술가들을 다시금 끌어 모으고, 주민들의 삶의 환경 개선과 전시를 통한 방문객을 끌여들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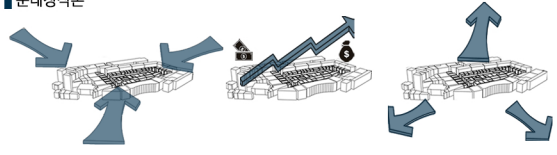
변재현
BYEON JAE HYEON

"인생이란 네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대선 제분 공장 & 영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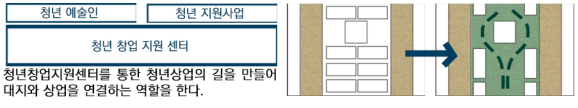
생산을 중단하게 된 대선제분공장과 지금은 쇄퇴한 영일시장으로 인한 주변미관의 문제

문래창작촌



문래창작촌은 철공업만을 하는 상업단지였으나 갈곳업는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 하나의 예술가 거리를 만들어 졌으나 유명세를 타면서 치솟는 방값을 이겨내지 못한 예술가들은 떠나게 되었고,

주변연계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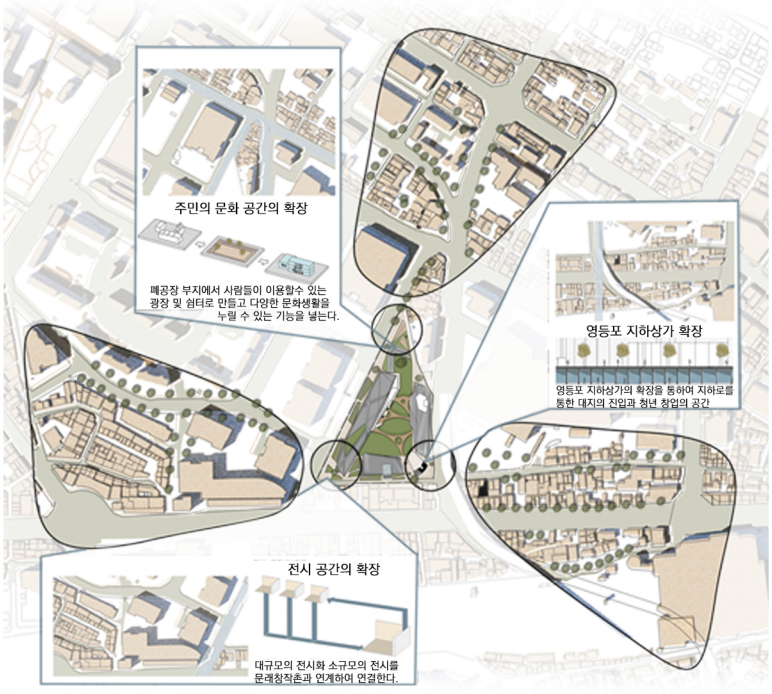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청년상업의 길을 만들어 대지와 상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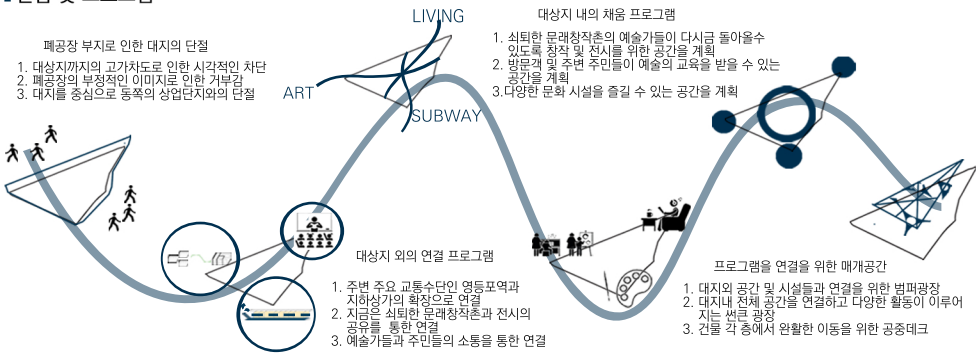
고가도의 하부공간의 주차의 배치를 변화하여 대지까지의 산책로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연결한다.

문래창작촌과의 연결을 위해 대지에서의 전시와 연계하는 소규모 전시를 통하여 사람들의 동선을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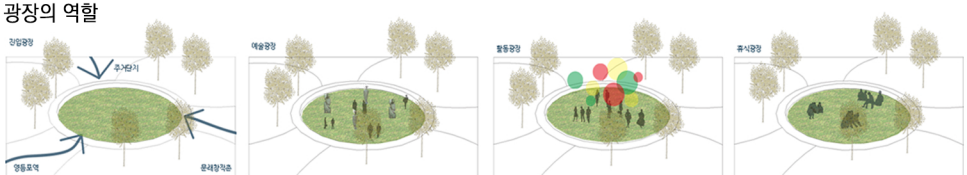
마스터 플랜



컨셉 및 프로그램



광장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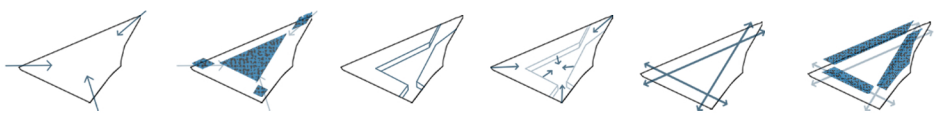
영등포역, 문래창작촌 주거단지를 연결

전시장의 확장을 통한 작품의 야외전시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편안한 휴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광장 프로세스



주변 거점으로부터 대지로 접근을 위한 진압공간

대지 초입부에 범퍼광장을형성, 범퍼광장을연결하는 중앙광장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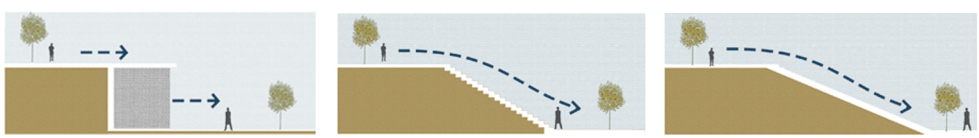
광장을 썬큰의 형태로 하여 대지내부의 활동을 외부로부터 차단

광장을 통하여 진입하고 다시 광장을 통하여 공간을 연결

대지선을 선을 만들고 중앙의 광장의 공간을 분할

중앙에 광장이 들어감으로 외각을 따라 건물이들어갈 공간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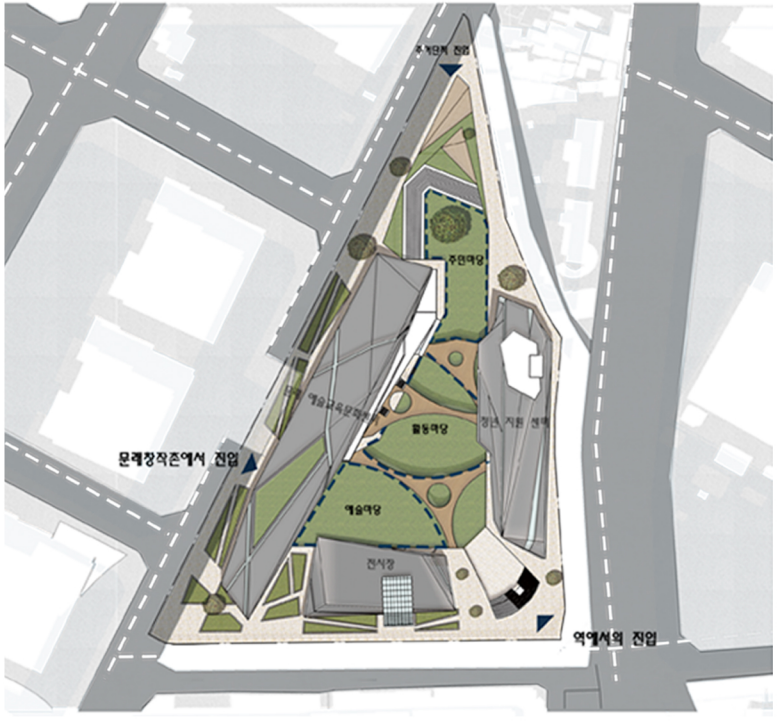
진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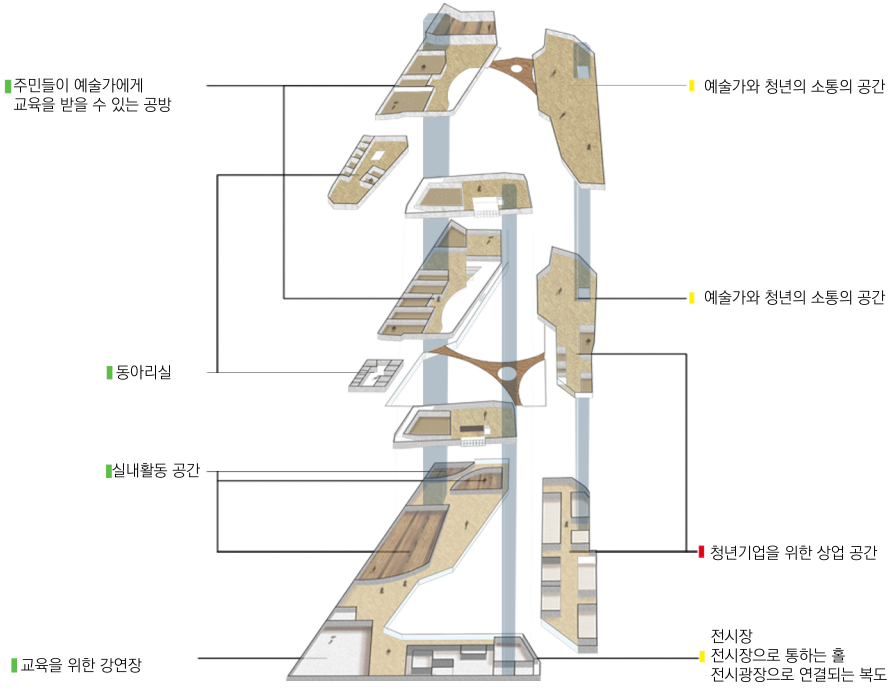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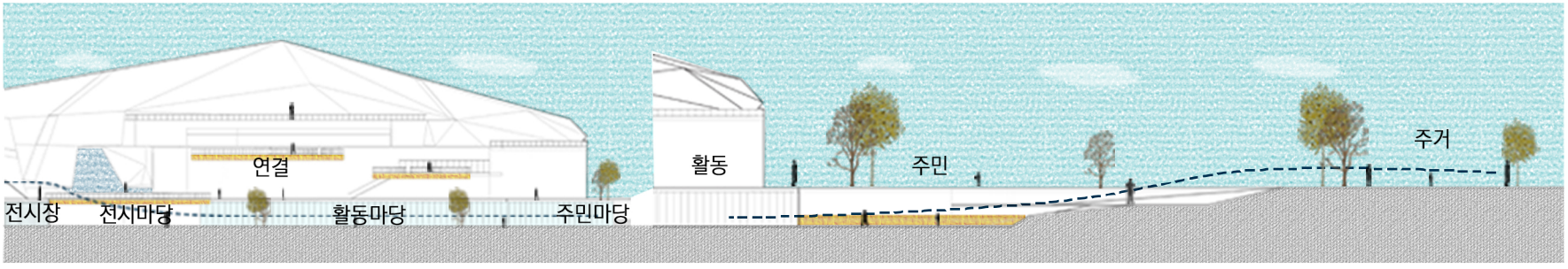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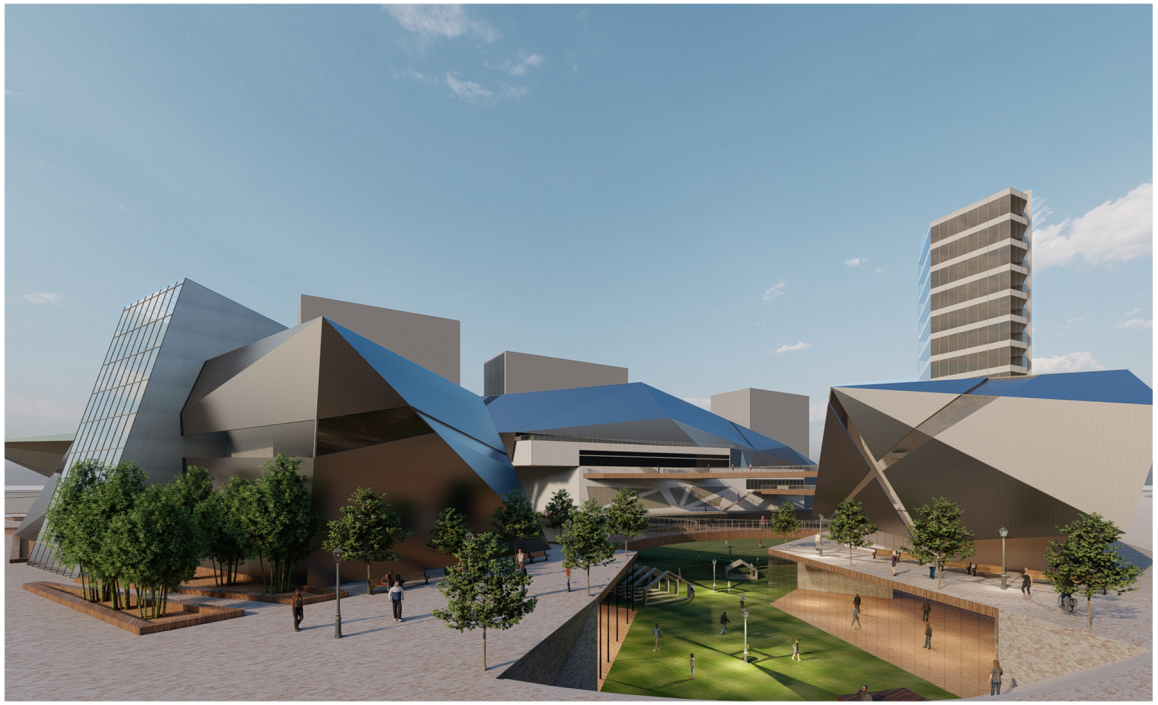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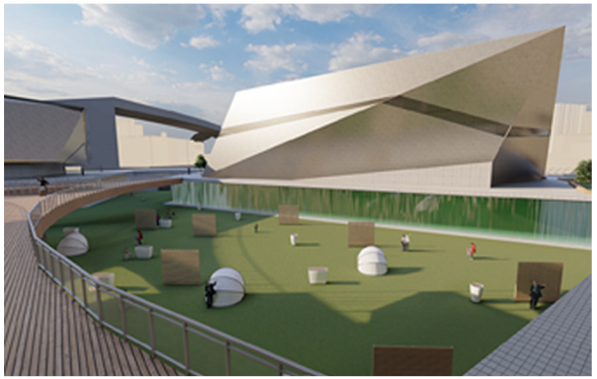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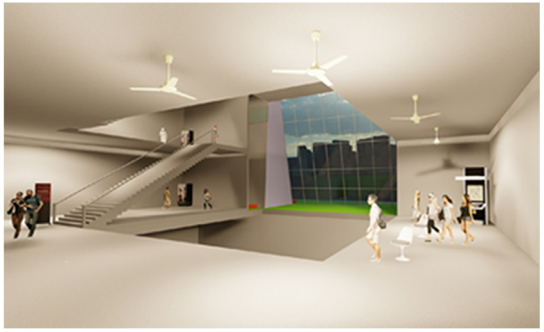
지하,지상으로 진입

계단으로 광장으로 진입

램프를 통한 광장진입



내부공간계획



광장으로 연결